



대행스님

독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크든 작든 자꾸 실천하다 보면 문 열려

15면에서 계속

말이고 그래도 다 배워서 자리를 잡고 넘어간다 이렇다면 조건없는 무주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조건 없이 무주상으로 해라 이렇다면 힘이 듭니다. 물론 알면 힘이 들지 않지만 말입니다.

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진화되고 형성돼서 벌어진 생명체인데,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의 인연으로서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배부러기 하나로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짐작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다. 또 네 자식 내 자식 내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이 고정됨이 없다. 자기 차원으로 자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금방에 가고 남마는 남마대로 남마전에 가고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는

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 애깁니다.

또 지계가 있고, 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킨다고 하는가.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것은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다 놓고 거기서 욕심과 집착과 관습 이런 거를 다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냥 놓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냥, 다 그냥! 다 계율을 지키는 거죠.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그러면 어떤 게 있어도 그 허공을 싸고 돌아가고 고름물, 핏물, 구정물, 흙탕물 등 온갖 물이 다 들어가도 그것이 한 바다의 물로 다 젖는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또는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들로 보지 않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오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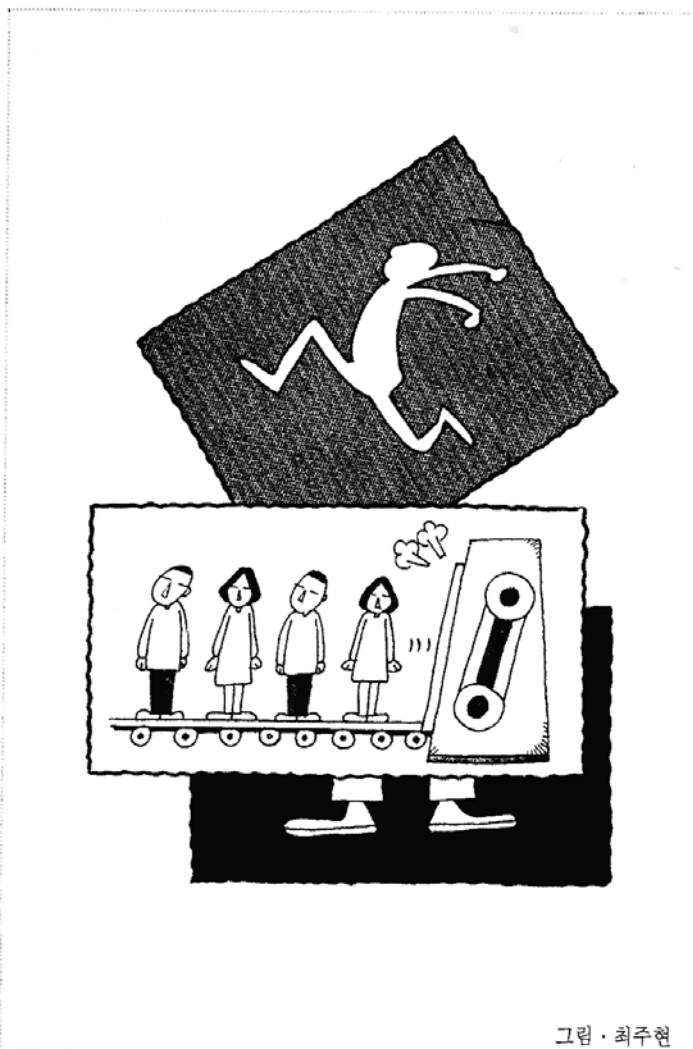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나,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선정이고 또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선정입니다. 다시 보면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악연이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선정이 되겠지만 하나로 본다면 선이 있음으로써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도 있는 겁니다. 이걸 들로 보지 않는다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해서 막 나쁜 일을 저지를 때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는 자진데 그 마음이 바뀌지는 거죠. 들

것도 한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 모두는 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왕이요, 왕! 그래서 자발이라는 거죠. 내 자발을 모르는 외부의 모든 일체제물을 모른다는 얘 기지. 내 자발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체제 물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통을 벗어나야 이 육신을 제 말대로 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통이라고 바꾸었습니다. 오신통을 굴리려면 바로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누진까지 들어가야 굴릴 수 있는 거죠. 자유자재로 이

서 이상하게 오래 살지도 못하게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 기죠. 그러니까 한 생을 사는데 빨리 돌아가는 도중에 빨리 한생각 해라 이거야, 아귀를 벗어날려면, 허허, 왜 저 사람 네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죽이나, 우리를 몰살을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왜 하루 종일 먹어도 배가 고프냐. 그런데 배가 고프게 이렇게 사는 불쌍한 나를 왜 또 죽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다 가졌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본래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게 불성은 다 돼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자라고 모자라지 않는 이 차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사람 만드는 공장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중세계라는 것이 바로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그러니 천차만별도 모습을 해가지고 하 세계로 떨어지느냐, 또 어떻게 상세계로 승진을 해서 올라가느냐 이 문제가 중세 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중간에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 가지도 못하고 중세계에서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퀴에 걸달려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한치도 벗어나 지 못하고, 그게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이외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바로 우리 발 밑에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플로만 본다면 내가 뭘 때문에 저 사람들을 로 인해서 자나깨나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벌써 돌아 안 난 까닭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 아프면 약을 발라서라도 고쳐야 내가 편안하지 이거를 안 만져놓으면 아주 귀찮단 말예요. 아프고 귀찮고 그러니까 고쳐서 가는 거지 남이 불쌍해서 건지려고 또 아주 좋은 선지식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라고요. 이게 돌아 안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아.

그러니 보시를 많이 하고 착하게 마음을 써서 보살행을 한다 부처가 된다 이게 아니고 알고 본다면 즉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왜 때 미생물도 부

만약에 영이 수 만 개라도 내 이 마음에 다 넣으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다 알게 돼요. 내가 안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도 그냥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제가끔들 고생할 게 하나로 되니 말입니다.

천도라는 것도 꼭 법당 안에서만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 오다가도 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주에 있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막 나오는데 보상이 있다 하는 소리가 "저 마당 좀 보세요." 그래요. 목욕탕 뒤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넓은 마당에 그 집 작은 며느리가 미쳐서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작은 며느리가 미쳤으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거기서 그대로 천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 탓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업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 내가 전자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애를 쓴다 이런 생각도 마셔야 합니다. 업이라는 것이 잘못해서 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상세계로 오르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중세계의 살림살이에 달려있어

가는 도리가 없어요. 그냥, 업적이란 애깁니다. 그건 이름일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30년을 다닌 업적이 있다거나 농사를 30년 지은 업적이 있다 또는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업적이 있다 이런 업적이요. 그걸 죄로서 업적이라는 게 아니고 살아나가는 게 그냥 업적입니다. 우리가 70년 사는 동안에 업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업적이란 것조차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공해서 없거든요. 내가 없는데 뭐가 거기 업적이 있고 업이 붙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공해서 없다는 것, 그러면 그 없다는 이유는 뭐냐. 잘나잘나 공해서 자꾸 도망가고 뚝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했다는 겁니다. 힘이 없이 하고 있고 있는 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가 팔란트처럼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다. 한철 이렇게 살다가 막이 내리면 다시금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는데 내가 한 업이 뭐 있고 내가 없는데 한 게 뭐 있고 할 거는 뭐 있고 또 했다고 할 거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공해서 나한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걸 거기다가 놓고 입력을 하면 앞서의 입력은 다 없어집니다. 즉 그것은 항상 넣어도 넣어도 비어서 돌아간다 이런 뜻이요.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진정코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위 법문은 1999년 6월 6일 법형제회 정기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마음이 돌아니게 푸근하면 몸속 의식도 돌아니게 푸근해서 싸움도 없고 건강하고 편안해져

것, 끼리끼리 이렇게 차원으로 만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 돌린 돈을 봐도 끼리끼리 낚지 절대로 섞어 놓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기출대로 자기가 하는 것대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것과 같이 우리 사는 것도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갔는데 그것을 잘 따져서 보면 내 아님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법당에 보시를 한다 할 때도 꼭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부인이 잘 되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하는 걸린 요구가 있습니다. 꼭이요, 그냥 무주상으로 했으면 자기도 무주상으로 100% 받을 것을 그 걸린 것 때문에 다 못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돌아 안 고로 나는 내 주인공 자발 자부처님한테 올린다 이렇다면 자기한테 자기가 올려서 자기 밥 자기가 먹는데 그걸 뭐 보시했다 뭐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진정으로 믿으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데 무슨 보시가 되고 뭐가 붙겠습니까. 무조건이지, 그게.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없이 한 것처럼 조건없이 받을때도 불구하고 항상 요구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대로 붙는 것만큼 달 받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 한생각 때문에 그만쯤 떼어놓고 받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지 모릅니까. 그 한 생각이 우주 법계를 움직여리게 하고 그 한 생각이 바로 세상을 움직여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보이는 몸체를 가지고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살아있는 여러분도 많으니까 말입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보시' 그러면 공심으로 보시를 해야만 합니다. 공심으로 보시를 해야만 그건 보살행이요, 무주상 보시요, 조건없는 보시다 이겁니다. '공생' 하는 뜻은 모두 내 아픔과 내 생명인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내 마음과 풀 아니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그 속에는 아픔도 핏기는 마음도 다 담긴 것이 내 한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내 한마음과 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무주상보시자 조건없는 보시입니다. 그야 여러분께도 조건없이 갈 겁니다. 그건 둘째 처놓고도 벌써 우주간 법계에서 전부 알게 돼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게 되는 도리가 되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없

받은 여러분처럼 그 오계가 다 공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계율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없이 되죠.

그리고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참는 것이 인욕이라고 그러면 안되죠. 놓는 것이 인욕이요. 놓는 것! 내가 찾으라고 그렇지 않고 놓아라 그랬죠. 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아라 이런 거죠. 너가 너를 찾는다 면 풀이 되니까 너는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살해라. 너가 너한테 보살해라. 이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놓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 과정이 오계를 받고 들로 보지 않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 되죠.

그러나 이 육바라밀이라는 것도 따로

탐심·집착 놓고살면 계율 저절로 지켜져 사는게 업이지만 내가 공하면 업도 없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지혜로 넘어가 수도 있습니다. 정진도 따로 없이 지혜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머리 따로 있고 눈 따로 있고 귀 따로 있고 코 따로 있고 입 따로 있고 이렇게 몸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에 모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놓고 가는 게 정진이에요. 풀 아니게 놓고 가는 도리가 말예요.

이게 지금 들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공부는 너무나 커서 허공을 삼키는 공부입니다. 허공을 삼키고 바다를 삼키는 공부예요. 삼켰다 하면 스스로 토해 내놓는 게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내뿜듯이, 그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우리가 합박 들어갔다 하면 내 놓고 내놓았다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쉼 사이 없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는 것이 진리요, 세상살이요, 우리의 삶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부처님 법이다 이렇기 이전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법이 불법이요 부처님 법이요 진리요 이렇다는 얘 기죠.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또 좋은 일반 해서 선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쁜 일도 선정

이 아니게 돼서 자꾸 좋은 일반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선정이 돼서 보살의 행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풀 아니게 스스로 되는 거죠.

수만 개의 생명들이 이 육신 속에 있을 때 이 육신의 생명들의 의식들도 따라가거든요. 이것 참 미묘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참 꼭 알아야 될 문제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따르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따르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죠.

이래도 따라 오고 저래도 따라오고 이게 그냥 모두가 붙어서 그대로 따르게 되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풀 아니게 푸근하면 속의 의식들도 푸근해서 풀 아니게 싸움도 없고 몸이 편안하고 건강해지는데, 내 자체가 벌써 의견이 맞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속에 의식들도 따라서 연방 부추긴단 말입니다. 부추기니까 이거는 안에서 싸우고 바깥에서도 싸우고 이렇게 돼서 몸을 해치게 되고 가정을 다 해치게 되는 거죠. 이게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우리 육체가 나가 무의 세상 유의 세상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내면 세계, 외부세계, 이 몸중이 속에 하나가 모두 내면 세계예요. 이

몸통이를 굴릴 수 있어야 이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구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을 새로 만드는 공장이다 이겁니다. 지구라는 혹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차원높게 만드는 공장이다 이겁니다. 이 공장에서 지금껏 수억겁을 거치면서 들었다 이거예요. 들고 들고 또 들고, 그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지만 한마디로 하려면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계 공장에서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내 보냈는데 잘못 만들어져서 도로 그 공장으로 되돌아올 때 그 물건은 다시 불 속으로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육도윤회라 하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인간 이렇게 얘길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공장에서 아주 찌꺼기 남는 거 이런 것이 즉 아귀 축생이라. 무쇠덩어리로 나가 부지깅이도 만들고 뭐 불 튀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 뚜껑이나 바깥에 놓고 써도 괜찮은 것, 이런 거 만드는 게 아귀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고동, 이거 현실입니다. 입은 조그맣고 몸은 길고 크고 그런 것이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모가 있고 자식이 있었습니까. 자꾸자꾸 진화해서 인간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오늘 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오늘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이전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좋은 일에도 살생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이겁니다. 물고기가 수 만 마리가 잡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이 도리를 안다면 그 수만의 갯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하나로다가 품쳐서 인간 하나로서 생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무주상 보시를 한 거고 또 그 고기들이 내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 고기는 사람처럼 인과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